

## Session I – G20, 어떻게 IMF 를 개혁해야 하는가?

발표 - Kenneth W. Dam 시카고 대학 교수

토론 - 김준기 연세대 교수, Masato Histatake 일본 Tohoku 대학교수

*Kenneth Dam – “G20 는 국제정책 공조에 집중해야, IMF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Kenneth Dam 교수는 G20 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데에는 효과적임을 보였지만, 국제금융기구 개혁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G20 는 독자적인 사무국과 재원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비공식 포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G20 가 IMF 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 개혁 논의는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위임하고, 대신 국제경제가 직면한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IMF 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Dam 교수는 쿼터 재조정 보다는 이사회 의석 조정이 IMF 지배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보유한 유럽국가의 의석을 신흥개도국에 이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김준기 교수 토론* – Dam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G20 가 많은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한계가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G20 가 상시적으로 IMF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겠지만, IMF 개혁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개혁 추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IMF 이사회 개혁에서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의 위상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지명이사국으로 승격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명국 중 누구를 대체 할 지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입법부적 기능과 사법부적 기능을 모두 지닌 이사회 개혁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관건은 이사회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상위 기구로서 이사회는 책임감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 현재 IMF 개혁 논의의

한계로는 IMF 심의기구 중 어느 기관이 실질적인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준기 교수는 새롭게 각료이사회를 가동하여 이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IMF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근 60년 동안 경제력을 기반으로 IMF에서 강한 투표권을 유지해 왔던 선진국과 근래 위상이 급격하게 격상된 신흥개도국간의 깊은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소규모 국가의 이해와 전통적인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EU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변화 과정이 현재 IMF 개혁 논의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ession II – G20의 미래는 무엇인가?

발표 – Stephen Krasner 스탠포드 대학 교수

토론 – 손열 연세대 교수, Motoshi Suzuki 교토대학 교수, Zhang Yangbin 칭화대 교수

*Stephen Krasner - "현재로서는 G20가 국제협력의 유일한 대안, 리더십과 국제공조로 G20의 한계를 극복해야"*

Stephen Krasner는 G20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현재 국제 세력 분배 상황을 밀접하게 따라가면서 금융규제 등 국제경제의 주요 현안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력분배 양상이 유동적이고, 중국이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G20가 전지구적인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또한 G20는 적지 않은 내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불확실성, 173개국에 달하는 비회원국을 배제함에 따르는 정당성 적자 문제, 금융규제 개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충돌, 거시경제 불균등 해소 문제에 대한 갈등 등의 국가간 차이와 대립,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등 국내 이해당사자의 지지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손열 교수 토론 - 손열 교수는 G20의 등장이 IMF와 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기존의 국제기구로는 복잡하고 연결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20 는 또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걸 맞는 유연하고, 신속하며, 통합적인 비공식 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성격을 가진 G20 구조는 한국과 같이 중재적 지위와 지식 기여 능력을 가진 중견국가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Motoshi 교수 토론* - Motoshi 교수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회원국으로 구성된 G20 가 실효성 있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질적인 국제공조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는 G7 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라고 지적한다.

*Zhang 교수 토론* - Zhang 교수는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G20 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G2 체제에는 반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서 G20 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강대국들의 장기적 시각 부족을 G20 체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Session III – G20 에 대한 국내 지지는 안정적인가?**

발표 – David Brady 스탠포드 대학 교수

토론 – Keisuke Iida 동경대 교수, Natalio Soebagio 인도네시아 국립대 교수

*David Brady* – “미국 의회의 G20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 조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G20 에 대해 지지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 의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G20 가 선진국과 신흥국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포럼인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과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미국 의회가 G20 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G20 의 결정 또는 G20 에서의 협력 실패가 미국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현재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국 의회가 G20 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다른 나라의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인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미 FTA 사례가 보여 주듯이 무역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G20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G20 리더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현재 미국 의회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시하는 위안화 절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G20 정책을 외교안보 이슈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의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만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무역정책은 실질적인 경제 이익에 영향을 주며,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역 정책에 개입한다. 현재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조합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악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G20 가 위안화 절상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G20 가 미국 보호무역주의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 **Session IV – 기후변화 협상도 G20 가 다루어야 하는가?**

*정서용 교수 토론* – 정서용 교수는 유엔이 주최한 코펜하겐 회의의 실패와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할 때 G20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UNFCCC 과정의 어려움이 참여국가의 규모에 기인한다면 G20 가 그 대안으로 매력적인 기구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G20 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하는 유연한 합의체이기 때문이다. G20 회의가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UNFCCC 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G20 는 피츠버그 회의 이후 기후변화문제에 깊숙하게 관련하여 왔다. G20 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교수는 3 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는 Climate Change Dialogue Initiative 를 G20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회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Major Economies Forum 과 Clean Energy Ministerial Meeting 과 같은 기존의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설 사무국을 갖춘 Climate Change Forum 이 세워 질 수 있다. 많은 G20 회원국이 기후변화 논의는 꼭 다루어 져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본다. 향후 G20 회의에서 기후 변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G20 서울 회의는 기후 변화 논의에 있어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erry Soret 박사 토론* - Soret 박사는 G20 와 기타 다른 소규모 다자주의 접근방식(mini-lateralism)은 신속한 집단적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G20 가 UN 프로세스를 대체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UN 을 통해서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